



미 증시, 지표 호조에도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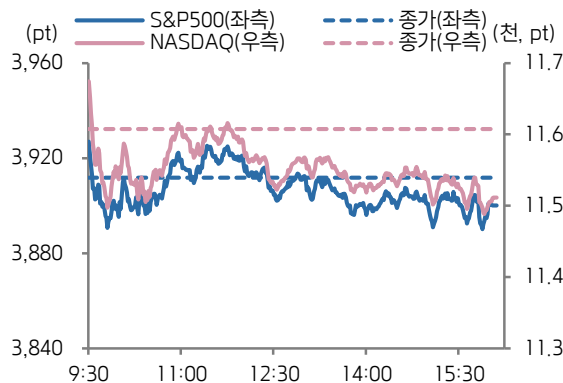
27일(월) 미국 증시는 5월 내구재 주문 호조,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상향 소식에도, 최근 단기 금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침체 경계심리가 지속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다우 -0.2%, S&P500 -0.3%, 나스닥 -0.72%, 러셀 2000 +0.34%).

미국 5월 내구재 주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했으나, 금주에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심리가 재차 부각된 점,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한 점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연준의 긴축 우려를 반영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2%대로 재차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 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미국 5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0.7%(예상치 0.1%, 전월치 0.4%)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 운송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주문 역시 0.7%(예상치 0.3%, 전월치 0.2%) 증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5월 미결주택매매 역시 전월대비 0.7%(예상치 -4.0%, 전월치 -3.0%)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 그러나 6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는 -17.7(예상치 -6.5, 전월치 -7.3)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 두 달 연속 위축 국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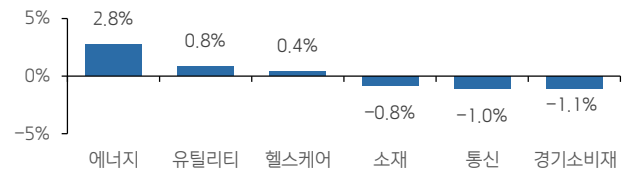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8%), 유틸리티(+0.8%), 헬스케어(+0.4%) 업종만이 상승, 경기소비재(-1.1%), 통신(-1%), 소재(-0.8%)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G7 이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미국 내구재 지표 호조 등으로 유가 하락세 진정되며 지난주 급락했던 에너지 업종 반등. 항공 크루즈 업종 고유가 기조 유지된 영향으로 마진 악화 우려로 지난주 상승폭 반납. 알파벳(-1.82%), 아마존(-2.78%), 메타(-0.39%) 등 주요 시총 상위주는 상승폭 반납. 코인베이스(-10.76%)는 투자외견 하향되었다는 소식에 추가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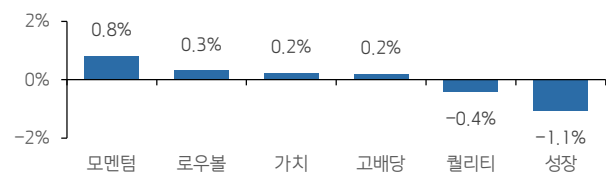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00.11	-0.3%	USD/KRW	1,286.39	-0.93%
NASDAQ	11,524.55	-0.72%	달러 지수	103.95	-0.22%
다우	31,438.26	-0.2%	EUR/USD	1.06	+0%
VIX	26.95	-1.03%	USD/CNH	6.69	-0.03%
러셀 2000	1,771.74	+0.34%	USD/JPY	135.46	+0%
필라. 반도체	2,713.48	-0.1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13.67	-0.26%	국고채 3년	3.560	+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712	+8.7bp
Eurostoxx50	3,538.88	+0.16%	미국 국채 2년	3.121	+5.8bp
MSCI 전세계 지수	614.59	+0.31%	미국 국채 10년	3.200	+7bp
MSCI DM 지수	2,619.48	+2.7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1.18	+1.59%	WTI	109.57	+1.81%
MSCI 한국 ETF	59.50	+0%	금	1824.8	-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는 0% 상승, MSCI 신흥국 ETF는 +0.1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5.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최근 2 거래일간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2. 장중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패턴 급변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원/달러 환율 1,280 원대 안착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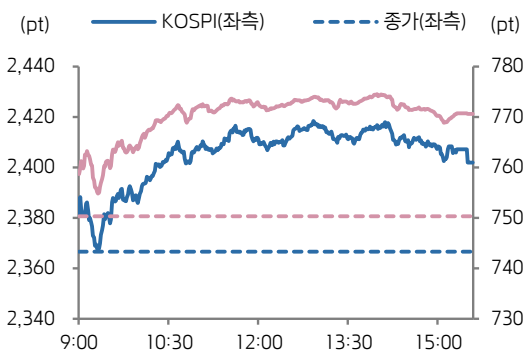
6월 중순 애틀랜타 연은의 2분기 GDP 추정치(GDP Now)가 0%로 집계됨에 따라 침체 불안이 가중되기도 했기도 했으나, 27일 업데이트된 추정치 상으로는 0.7%로 상향조정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 그러나 GDP Now의 경우, 월중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업데이트해서 반영되는 만큼 주중 발표 예정인 5월 PCE, 6월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 것으로 예상.

평소대로라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GDP Now 수치의 중요도는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는 함. 하지만 “인플레이션→연준긴축→수요둔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과거와 차별화되는 부분. 결국, 7월말 2분기 성장률 예비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기술적 혹은 소프트 침체(1~2개 분기 단기침체) 논란이 지속될 전망.

물론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요국 증시의 최근 낙폭은 과도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6월 폭락의 추가 재연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에도 기술적인 랠리는 출현할 것으로 예상. 다만, 약세장 탈출 여부(현재 나스닥 고점대비 -29%, 코스피 고점대비-28%)는 6월 CPI, 2분기 성장률, 7월 FOMC, 실적시즌 등 7월 중 주요 이벤트 결과에 달려있다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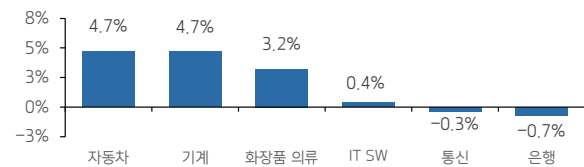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지난 2 거래일 간 급반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및 기존 포지션 손실 축소 성격의 매도 물량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유가 강세 재출현 속에서 최근 반등장에서 탄력이 약했던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건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단기 급등세를 연출했던 일부 성장주들은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업종간 차별화된 장세를 전개할 것으로 판단. 또 한국과 미국 증시 간 6월 이후 디커플링 났던 배경에는 신용반대매매, 외국인 현선물 매매패턴 변동성 확대 등 수급 이슈도 기인한 만큼, 장중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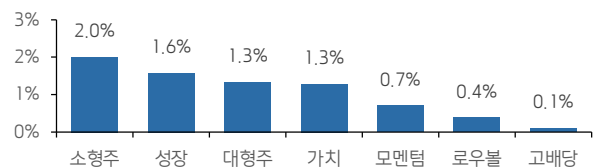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